

“일어난 감정도 근본에 놓으면 조절 가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2015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개최

청소년 스스로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8월 3일~5일 청소년을 위한 '2015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공생을 의미하는 '너, 나 하나라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조계종 포교원서 인증심심계발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했으며, 부산 영도 동상중학교 소외계층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오감체험프로그램인 '컴백홈'.

부산 영도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공생' 주제 긍정적 사고관 심어줘
오감체험 프로그램 '컴백홈' 호응

프로그램 지도를 맡은 혜백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나무에 연결된 잎이 꽃이다. 아무리 싱싱한 잎사귀나 꽃도 뿌리가 상하면 시들고 만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는 혼자만 행복할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과 특강 등은 지양하고 바다 체험, 숲속 캠핑, 물놀이, TV 드라마 및 영화 상영 등 청소년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기획됐다. 이와 함께 그 안에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메시지와 법문을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아 능동적 참여를 도왔다. 특히 현실적인 체험 속에서 참가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 스스로 지혜의 답을 찾도록 이끌었다. 태종대 바닷가에서 진행된 '와 바다다!' 도 이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참가자들은 투명 컵에 바닷물을 담고 기쁨, 슬픔, 까칠, 버럭, 소심이라는 감정을 표현한 오색 색소를 건네받는다. 여기서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감정의 색을 선택하고 두 가지 색을 섞어 색깔이 어둡고 지저분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바닷물에 붓는다. 이후 깨끗해진 바닷물을 다시 투명 컵에 담아 느낀 점을 나눈다. 혜백 스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도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근본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일어난 감정을 다시 근본에 돌려놓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실습을 통해 알도록 했다. 참가자들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밖에도 오감 체험 프로그램 '컴백홈' 또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혜백 스님은 “눈을 가리고 음료를 마신 후 오감을 체험하는 코스 오감에 속고 사는 것을 알아 자신의 근본 마음을 의지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라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감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감각이 주는 판단에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었을 것”이



촛불제 형식의 '마음 등불' 프로그램 모습. 힘든 마음을 재로 삼아 만든 초가 주위를 밝히는 과정을 시각적 이미지로 확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라고 전했다. '컴백홈'을 체험한 이수현(동산중3) 학생은 “나 자신이 가장 많이 속는 감각이 시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친구를 볼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거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나의 초를 밝혀라”는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후 촛불제 형식의 '마음 등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는 힘든 마음을 재로 삼아 만든 초가 주위를 밝히는 과정을 시각적 이미지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밖에도 △수퍼파워 컬렉션 △나의 향기를 찾아서 △체인지 업 △우리는 명콤비 △보물상자를 열리라 △열매를, 열정과 패기가 땀을 뿜어라 △숲속 캠핑 △하나로 퍼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박재은(동산중2)학생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일정을 소화했는데 금세 밤이 된 것

을 알고서야 시간 가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았다. 선생님들과 스님들께서 편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행복했다”며 참가 소감을 피력했다. 오현주(동산중3) 학생도 “처음으로 사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석 해봤는데 불교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 시설도 너무나 깨끗하고 공양도 맛있고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하나하나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마음등불 프로그램의 청소년 인증제를 준비 중이다. 혜백 스님은 “인증증을 받으면 더 많은 학교나 단체에서 참석 할 것으로 보여 일반 청소년들의 참석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께서 청소년 포교 의지가 확고하시니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 된다”며 계획을 전했다. 부산=하성미 기자

정읍 내장사 대웅전 복원불사 완료

약 150㎡ 규모... 총 25억원 예산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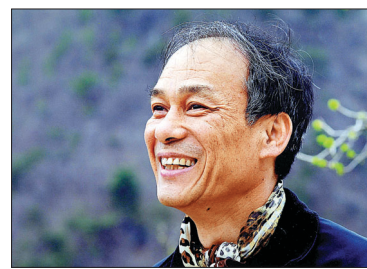
지난 2012년 화재로 소실된 정읍 내장사(주지 혜산) 대웅전이 지난 7월 31일 복원공사를 완료했다. 대웅전 복원불사는 총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4년 7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복원불사로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약 150㎡ 규모에 팔작지붕 형태로 자리하게 됐다.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은 “대웅보전이 복원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읍시 등 관계기관과 불자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장사 대웅전 복원을 계기로 천년고찰인 내장사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과 약사여래, 아미타불의 삼존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봉안할 계획이나 약사여래불과 아미타불은 아직 모시지 못했고 현재는 후불탱화를 조성중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웅보전에 불보살을 모두 봉안한 후에 성대한 봉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라며 “목재가 모두 건조되는 2~3



정읍 내장사 대웅전 복원불사 완료 모습. 정면 5칸 측면 3칸의 약 150㎡ 규모에 팔작지붕 형태.

제천시청에 소장유물 611점 기증

김연호 제천 우리선우 대표



시골마을을 왕진하며 틈틈이 수집한 소장유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불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충북 제천의 '우리선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연호 진주동물병원 원장(사진)은 7월 30일 제천시청에서 소장유물 297건 611점을 기증했다. 김 원장의 유물은 충북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한다. 김 원장이 기증한 유물은 고서적과 민속품 등으로 민속품점에서 산 것 외에도 집안에서 물려받은 물건과 청풍오도 왕진을 다니며 수해지역 주민으로부터 직접 사재를 들여 사들인 물건들이다. 1977년부터 진주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은 제천시청 농가를 방문해 향토유물을 접했고, 문화재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1980년대 지역에서 반출되는 향토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해 이를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런 공로로 국민

훈장과 충북도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미 국립청주박물관에 2차례에 걸쳐 600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했고 월정사 성보 박물관에도 불교문화재 5점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고문서와 청자, 토기, 화폐 등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로 이뤄져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불교 유물 수집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번 기증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증구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론 집중 강의 수련회 개최

안동 보경사, 8월 22일~ 23일

경전 중론 불교 공부 도량을 선인한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가 8월 22일~23일 경전 집중 강의의 수련회를 연다. '중론'을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이번 강의의 모집인원은 15명이다. 오경 주지 스님은 “지나간 겨울에 이어 중론을 집중 강의하는 이유는 불교의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경전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다른 곳에서는 잘 교재로 채택하지 않는 경전이라 경전 집중 강좌 수련회를 통해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054)842-4080

경주 '실크로드 축제'로 유라시아 품다

21일부터 40개국 1만여명 참여 석굴암 가상 체험관도 주목

경주가 신(新)문화실크로드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실크로드경주2015'가 8월 21일~10월18일 경주엑스포공원과 경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40여개국 1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이 행사에는 '문명의 만남'을 비롯해 '황금의 나라 신라', '어울림 마당', 각종 연계행사 등 4개 분야 3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주시는 “고대의 실크로드가 나타나

말, 배 등을 이용한 고전적 길이었다면, 철도와 컨테이너를 통한 산업사회의 교류를 뛰어넘어 이제는 IT를 통한 정보와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실크로드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라며 취지를 전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실크로드 그랜드바자르'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바닷길 국가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러시아 등 사막길과 초원길 국가 등 19개국이 참가한다. 이들 국가들은 부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전통

공연과 인형극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은 문화와 첨단 ICT 기술이 만나 석굴암을 가상체험할 수 있다. 경주시는 “HMD(Head Mounted Display·머리 뒀개형 디스플레이)와 모션 센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석굴사원인 '석굴암'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석굴암 안을 걸으며 석굴암 본존불상뿐 아니라 석굴암의 부분적 의미까지 알 수 있어 교육적 효과도 뛰어나다. 유라시아 밖에서만 본존불을 손을 뻗으면 닿았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054)740-3061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품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장증상,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맹대허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허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열복대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롬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들에게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제품 설명

-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cm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종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 꽂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며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

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효동선각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들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들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품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장증상,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맹대허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허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열복대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롬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들에게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제품 설명

-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cm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종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 꽂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며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

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효동선각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들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들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